

제작업계도 불황의 '도미노' 현상

종이·제판·인쇄업 등 경기침체 ... 출판업이 활기떠어야 숨통 틈 듯

책동네에 도미노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올들어 폐업한 출판사는 부지기수다. 바뀌말해 그 출판사들과 거래관계에 놓여 있던 인쇄소와 제본소 같은 제작업체들 역시 타격을 입었을 것은 뻔한 일.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판집과 사식업체, 그리고 인쇄·제본소의 심각한 경기침체는 출판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극도로 악화된 형편이다.

종이수급 '빠직' 제본소는 운영곤란

출판의 유관업종은 크게 나뉘 종이를 대주는 지업사, 사식집, 그리고 제판소와 인쇄·제본소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지업사는 딱히 출판사와만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출판업의 불황이 고스란히 전해지지는 않는다. 서울 시내 을지로를 중심으로 산재한 지업사 중 한 곳인 K지업사의 경우, 요즘 겨울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출판사와 캘린더 등 연말연시 특수상품의 폭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이값 현실화에 따른 지대 인상으로 최근 들어 가장 '목에 힘주는' 대목을 맞고 있다.

"종이 발주가 쉽지 않아요. 특히 단행본 출판사들이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해 출판을 서두르고 있어, 서적지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 상태죠. 따라서 대금결제야 양호한 출판사들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업사측의 얘기에서도 나타나듯, 출판사들의 결제가 원만하지 못해 용지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요즘 경영이 어려운 출판사들은 그렇지 않은 출판사들에게 종이발주를 대신 부탁하는 편법을 써야 하는 고충까지 겪고 있다.

비교적 불황의 여파가 적은 지업계와는 반대로 가장 열악한 편인 제본업계는 몇 겹의 불황의 벽을 깨고 있다. 영창제본의 양춘섭 전무는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전한다. 그는 불황의 이유를 업체들의 난립에서도 찾는다.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제본소가 증가했고 기계의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출판사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난립한 업체끼리 가격 덩핑으로 제본비가 실질적으로 인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판집과

사식업체, 인쇄 제본소의

심각한 경기침체는 출판계의

어려움을 대변한다. 출판사의

결제가 원만치 못해 용지수급이

제대로 안됐고, 제본소는 기계를

세워놓는 날이 많았으며

사식업체는 문을 닫은 곳이

부지기수다. 올해의 경기침체는

새해 시장전망도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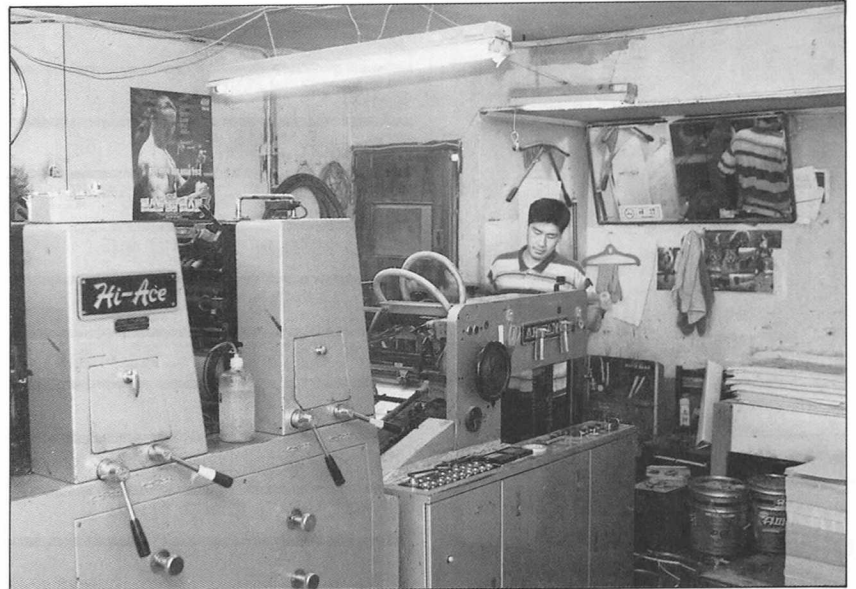
는 기현상을 빚고 있죠. 결국 한정된 시장을 자꾸 쪼개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본업계는 이밖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마저 안고 있다. 제본과 함께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식집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연말 성수기를 맞은 사식업체들의 경우, 매출은 예년의 1/4 수준이며, "기계를 세워놓고 있는 날이 많다"고 할 정도. 그중에서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킨토시 기종을 갖추지 못한 '구식' 업체들의 살림은 더 곤궁한 편. 모리자와나 아래아한글을 전문으로 하는 예일전산의 경우 그런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로 개업 10년째인 이 사식집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연속되는 경기침체로 운영상의 곤란이 가중됐다고 한다.

사식집·인쇄소도 불황여파

"한해에 열 권의 책을 내던 출판사들이 기껏 세 권을 낼까 말까 한 정도니, 사식집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그래도 형편이 낫다는 매킨토시 기종의 출력업체들 역시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 그만그만한 모양입니다. 하긴 을지로, 충무로 통에만도 10미터 간격으로 업소가 즐비하니까요. 사식집의 전체적인 수는 줄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는 업소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일전산 전경일씨의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대기업 상대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부



종이도매상·사식업체·제본 및 인쇄업체 등 출판제작업계의 경기침체는 특히 심했다. 사진은 충무로의 한 인쇄소.

도를 면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일 만큼 혹독한 불황을 맞고 있는 형편이다. 올들어 을지로 주변의 사식업체 중 문을 닫은 곳은 30여 곳이나 된다. 그러나 "그들보다 사정이 별반 나을 게 없는 업체들이 배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고 보면, 경기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판소의 경우는 어떨까. S정판의 모부장은 취재를 거부했다. 다시 말해 "도대체 말하기조차 신경질 날 정도"라는 뜻일 것이다. 인쇄업계 역시 반응이 다르지 않다. 설비가 제대로 된 큰 인쇄소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겠지만, 2도 걸러 인쇄기 한두 대를 움직이는 군소 인쇄소들은 출판계의 어려움이 거울에 비친 것과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쇄업자는, "국내 최고라 할 수 있는 인쇄설비를 갖춘 모 대형출판사가 일거리가 모자라 기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 데가 그 정도니 우리 같은 업체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되묻는다.

과다경쟁 사라져야

대여점의 확산과 독서욕구를 잡아 끌어내리는 정치사회적 사건·사고의 다발 등의 이유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출판계의 불황은, 이제 관련업계의 발을 묶는 단계에까지 다다른 셈이다. 그런데 이들 유관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올해의 버거운 경기침체가 아니다. 그 그림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새해의 시장 전망을 어렵게만 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출판업이 활기를 띠어야만 한다는 게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그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 대여점의 열기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 출판사들 역시 과도한 신간출간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소중소량 제작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출판시장이 호황으로 국면전환돼야만 관련업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업계의 출혈을 무릅쓴 과도한 경쟁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예측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영창제본 양춘섭 전무)

"내년까지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황의 시작이 책이 안 팔리는 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계의 사정이 나아져야만 우리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봅니다."(예일전산 전경일 사장)

출판계와 더불어 좋은 책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이들 업계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서점가에 부는 찬바람이 그치고 새해를 맞아 봄이 오길 기원하고 싶다. <최태원>